

# 국내 의학사서자격제의 현황과 문제점 및 의학사서의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Medical Librarian Qualification System and Medical Librarians' Self- Efficacy and Self-Esteem

오 의 경 (Eui-Kyung Oh)\*\*

### 목 차

- |           |              |
|-----------|--------------|
| 1. 서 론    | 4. 데이터 분석 결과 |
| 2. 이론적 배경 | 5. 결론 및 제언   |
| 3. 연구 방법  |              |

### 초 록

본 연구는 의학사서자격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하고, 의학사서의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을 측정하였다. 의학사서 자격증을 취득한 응답자는 49.4%였고, 이들의 82.9%가 향후 재취득 의사가 있었다. 의학사서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응답자는 대부분 자격점수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평가 항목 중에서, 출판활동 점수를 획득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하였다. 응답자의 자기효능감은 3.42점, 자아존중감은 3.89점이며, 여성이 남성보다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 모두 높고, 의학사서자격증을 취득한 응답자가 미취득 응답자보다 자신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학사서자격제도는 현재까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앞으로 더욱 발전적으로 정비하고 국가자격제도로 발전시켜 의학사서의 전문성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함을 제언하였다.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medical librarian qualification system and measured medical librarians' self-efficacy and self-esteem. 49.4% of the respondents acquired medical librarian qualification and 82.9% of them are willing to re-acquire the qualification. To obtain publishing activity point was the most difficult of all evaluation items. Average self-efficacy score was 3.42, and self-esteem score was 3.89, and women's self-efficacy and self-esteem scores are higher than those of men. Medical librarian qualification system has been managed in a stable manner, yet the system has to be consolidated and developed into a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so that it can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s in proficiency of medical librarians.

키워드: 의학사서, 의학사서자격제도, 주제전문사서

Medical Librarian, Medical Librarian Qualification System, Subject Librarian

\* 본 연구는 2012학년도 상명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상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조교수(ohuei@smu.ac.kr)

논문접수일자: 2015년 1월 26일 최초심사일자: 2015년 2월 9일 게재확정일자: 2015년 2월 16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9(1): 405-421, 2015. [http://dx.doi.org/10.4275/KSLIS.2015.49.1.405]

## 1. 서론

우리나라의 학부 문헌정보학과 교육과정 체계에서는, 특정 주제 분야의 지식을 갖춘 주제전문사서를 양성하기 어렵다. 그러나 대학도서관과 전문도서관은 전통적으로 주제전문서비스를 핵심 서비스로 제공해 왔으며, 최근 들어서는 공공서비스 영역에서도 전문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제전문서비스와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수요와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는 양상이다. 또한 주제전문사서 양성에 대한 관심은 오랜 시간 도서관 현장과 학계에서 이슈로 삼아 온 주제이기도 하다.

주제전문서비스와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필요성 증대는 도서관 정책을 통해서도 인지할 수 있는데,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2014)는 '제 2차 종합계획'에서 전문도서관들 중 공공서비스 제공의 성격이 강한 공공영역 전문도서관의 우선적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주제전문정보의 필요성을 부각시켰으며, 교육부(2014)는 '대학도서관발전계획'에서 주제전문사서의 교육 확대와 주제전문서비스 개발, 특히 '특정분야 주제전문사서 양성' 과정의 개설·운영 등을 추진과제로 설정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주제전문서비스에 대한 당위성이 있으며, 주제사서의 교육 기회 확대와 주제서비스 개발에 대한 꾸준한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각 주제별로 전문사서의 자격요건을 어떻게 할 것이며, 주제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충분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실정에서, 한국의학도서관협회 자격

관리위원회에서 2006년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의학사서자격제도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이 제도는 국가공인제도는 아니지만, 의학사서의 교육과 활동을 자격요건으로 규정하여 계속교육을 촉진하는 목적이 함축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의학사서 자격제도가 도입된 지 8년이 경과하였다. 의학사서자격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면, 의학사서들은 꾸준한 계속 교육과 전문활동으로 인하여,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의학사서자격제가 의학사서의 전문성 제고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였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의학사서의 전문성 수준은 의학사서들이 가지고 있는 의학분야의 전문 지식을 평가하거나 서비스에 임하는 태도와 심리 상태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 그러나 전문 지식의 평가는 그 내용의 범위와 깊이를 조정하는 것이 복잡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의학사서들의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을 측정하여, 의학사서의 전문성 수준을 가늠하고자 한다.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직무능력에 대한 신념, 직무 수행에 대한 자신감, 자신의 직무 만족도 정도를 표현하며, 자아존중감 역시 자신의 가치 평가 정도, 직무 만족도를 나타내는 데이터로 많은 사회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의학사서들을 대상으로, 의학사서들의 일반 현황, 자격 취득현황, 자격의 취득과 재취득 및 관련 의견을 조사하고, 그들의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 수준을 측정하며, 의학사서자격제와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의학사서자격제의 현황, 문제점, 의학사서자격제와 의학사

서들의 전문성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조사하고자 연구문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학사서의 일반현황은 어떠한가?

둘째, 의학사서들은 자격제도에 따라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재취득하는 것에 대하여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

셋째, 의학사서들의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은 어떤 수준인가?

넷째, 의학사서자격제도는 의학사서들의 전문성 함양과 긍정적 직무 태도 형성과 관계가 있는가? 의학사서자격제도와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다섯째, 의학사서자격제도의 문제점과 보완점은 무엇인가?

## 2.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연구의 중요한 배경이 되는 한국의학도서관협회의 의학사서자격제도의 내용과 변천에 대하여 살펴보고,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의 개념을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의학사서의 교육, 양성, 자격제도 등에 관한 선행연구를 조사하였다.

### 2.1 한국의학도서관협회 의학사서자격제도

한국의학도서관협회의 의학사서자격제도는 2001년 제 1회 의학도서관장회의에서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처음 논의의 핵심은 자격제도를 수립하는데 있었던 것은 아니다. 통상적인 행정순환보직제가 사서들이 충분한 전문성을 발

휘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여, 보다 나은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한 제도 보완책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수차례의 논의를 거치면서,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보완뿐만 아니라 의학사서들에게 의학사서의 특수성과 전문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계속 교육과 전문 활동을 통하여 의학사서의 자질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도 포함되었다. 2006년 규정(안)과 시행세칙(안)을 수립하고 위원회를 구성하여 의학사서자격제도를 심의 공표하였다(전혜영 2007). 따라서 2006년을 의학도서관자격제도 시행의 원년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의학사서의 자격 요건은 '교육(한국의학도서관협회 주관 의학용어강좌, 의학주제강좌, MeSH, WorkShop, 학술대회, 세미나와 도서관관련단체의 교육, 석·박사학위 취득 포함)', '실무경력(의학도서관과 일반도서관에서의 준사서, 정사서 경력 포함)', '학·협회활동(한국의학도서관협회에서의 이사장, 이사, 감사, 위원회 활동, 정기총회 참석, 주제발표, 기타 학회·협회에서의 국내외 발표 및 포상 포함)', '출판사항(학회지 논문투고, 협회출판물, 단독서적 집필 포함)', '지정학점(의학용어학, 의학정보검색론, 의학도서관운영론 수강 포함)'의 5개 평가항목에서 각각의 배점 기준에 의하여 합계 점수 60점 이상을 충족하는 것이었다. 60점 이상을 충족하게 되면 의학사서자격증을 교부하였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3년마다 재차 신청 절차와 인증 평가 절차를 거친 후 자격증을 재교부 받게 된다. 의학사서자격증의 취득은 강제 사항이 아니며, 신청기간에 스스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면 평가가 이루어

진다.

현재는 5개 평가항목 중, '지정학점' 항목이 삭제되어 4개 평가항목에 대한 자격 인증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의학도서관협회 사무국에 의하면, 2015년 1월 현재, 협회 소속 회원

기관 수는 163개관이며(특별회원 15개 기관 제외), 이 기관 소속의 사서들 중, 66명이 의학사서자격증을 취득한 상태이다.<sup>1)</sup> 현재의 의학사서자격요건은 <표 1> '의학사서자격심사평가서'의 평가항목 및 세부항목별 배점과 같다.

<표 1> 의학사서 자격심사 평가항목서

의학사서 자격심사 평가항목서								
구분	항목	세목	과정/행사명	일시	배점	평점	비고	
교육	KMLA	의학용어강좌			10/회		* KMLA 외 기관에서의 교육실적은 증빙서류 제출	
		의학주제강좌			10/회			
		MeSH 강좌			10/회			
		WorkShop			3/회			
		추계학술대회			3/회			
		세미나			3/회			
	도서관 관련단체	교육				1/일		
	문헌정보 및 관련과목				2/학점			
학위		석사			10		* 학위는 상위학위만 인정	
		박사			20			
구분	항목	세목	근무처명	근무기간	배점	평점	비고	
실무경력	의학도서관	정사서			2/년		* 상한 점수 30점	
		준사서			1.5/년			
	일반도서관	정사서			1/년			
		준사서			0.5/년			
구분	항목	활동명	활동사항	활동기간	배점	평점	비고	
학.협회활동	KMLA	이사장			5/년		* 중복 발표의 경우 높은 점수를 1회에 한하여 인정	
		이사, 감사			3/년			
		위원회활동			3/년			
		정기총회 참석			3/년			
		주제 발표			10/회			
	기타학회, 협회	국내발표				5/회		
		국외발표				10/회		
		포상			5/건			
구분	항목	세목	발표사항	발표일	배점	평점	비고	
출판사항	학회지 논문투고	원저			20/건		* 기타 학·협회 출판은 70% 인정	
		번역			10/건			
	협회의출판물	Medical Librarian			2/회			
	단독서적집필	단독저자				30/회(100%)		
		공저-3인이내				30/회(70%)		
		공저-4인이상5인이내				30/회(50%)		
	공저-6인이상				30/회(30%)			
합계점수								

출처: 한국의학도서관협회 사무국

1) 의학사서자격취득 현황에 대한 공개 자료 부재로, 의학도서관협회 사무국에게 전화 문의한 결과임.

## 2.2 자기효능감(Self-Efficacy)

자기효능감 이론은 심리학자 Bandura의 사회인지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론이다. Bandura(1997)는 자기효능감을 '구체적인 상황에서 성공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주어진 업무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인지적 판단'이라고 하였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어려운 과제들을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숙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자신의 실패 원인은 외부로부터 찾고자 하며, 반면에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들은 낙담을 하고 포기하는 경향이 많으며, 자신의 실패 요인을 자신의 낮은 능력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Steers and Braunstein(1976)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과제나 업무에 집중하여 높은 성취도를 보일 수 있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 높은 만족감을 느끼게 되며, 결국 자아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있다.

## 2.3 자아존중감(Self-Esteem)

여러 학자들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긍정 평가 혹은 부정 평가와 관계되는 것으로 자기 존경의 정도와 자기 가치에 대한 인식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낮은 자아존중감은 높은 불안감, 원만하지 않은 대인관계, 자신감 결여와 관련되고,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하거나 종사하고 있는 분야에서 재능이 없다고 여기며, 도전성과 적극성이 부족하다. 반면 높은 자아존중감을 지닌 사람은 자

기표현력, 자기확신, 인내, 리더쉽, 재능, 지능과 같은 좋은 인상을 주는 능력을 지내고 있으며, 직업선택에 있어 높은 지위를 보장하는 직업을 선택하고, 타인과의 교류에 능하다. 직무만족도 측면에서도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직무만족도가 높다(Rosenberg 1965; Cooper Smith 1967; 신유근 1997; Robbins 2005; 김새롬, 조효연 2012).

## 2.4 선행연구

의학도서관의 서비스와 운영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수행되어 왔으나, 의학사서를 연구대상으로 다룬 논문, 특히 의학사서의 자격과 전문성 평가 등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모두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주제전문사서이기 때문에, 주제전문서비스에 관한 연구에서는 자주 언급하지만, 본격적으로 의학사서에 집중한 연구는 드물다.

이 절에서는 본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의학사서의 교육, 자격요건, 자격제도 등을 다룬 문헌을 개관하고, 의학사서 대상의 연구는 아니지만, 사서의 직무 만족과 인지 특성 등에 관한 최근 문헌을 소개하고자 한다.

윤영대(2003)는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의 의학사서 교육제도를 상세하게 검토하고, 국내의 교육 여건에서 실현 가능한 교육 모델을 제시하였다. 교육 모델 내용의 개요는 첫째, 문헌정보학과 학부의 교과과정에 가능한 많은 의학도서관 과목을 개설하여 의학주제배경을 많은 구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둘째, 의학사서에 대한 계속교육을 필수화 하는 것, 셋째, 의학사서 제도를 채택하는 것이다. 의학사서자격제도가

시행되기 전의 연구로, 이 연구에서 제시한 내용들은 의학사서자격요건과 유사성이 높다.

전혜영(2007)은 의학사서자격제도가 시행된 이듬해, 의학사서자격제도의 문제점과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제도 시행 초기의 시행착오를 빠르게 개선해 나갈 것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교육 영역에서는, 교육의 방법, 횟수, 교육자, 학위 등에 대한 세부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실무경력 영역에서는 사서자격에 따른 차등 배점과 실무 업적 관련 항목의 추가 등을 주장하였고, 학·협회활동에 있어서는 한국의 학도서관협회 활동을 다른 학회보다 상향 배점하고, 활동 범위를 다양화 시킬 것을 제안하였으며, 출판사항에서는 학회지 그룹을 등재학술지, 등재후보학술지, 일반 등으로 구분하고, 창작서와 번역서도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본인이 의학사서로서, 이러한 의견 제시는 의학사서 집단 내의 자발적 개선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가치 있다고 할 수 있다.

노영희(2013)는 건강정보전문사서의 역할과 자격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구인구직사이트 분석을 기반으로 사서에 대한 명칭, 건강정보전문사서가 갖추어야 할 학력, 경력, 수행할 직무를 제시하였다. 명칭은 공공도서관에는 건강정보 전문사서, 병원도서관 및 의학도서관에는 의학전문사서가 적합하며, 석사 이상의 문헌정보학 교육 경력 및 학사 이상의 건강관련 교육 경력과 적어도 2년 이상의 건강정보서비스 경험, 커뮤니케이션 능력 및 대인관계능력, 건강관련 정보자원에 대한 높은 지식이 요구됨을 밝혔다. 사서가 수행해야 할 주요 직무로는 도서관운영 업무, 교육업무, 연구업무, 정보자원의 접근과

공유업무, 장서관리 업무, 정보관리기술업무, 지지활동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의학사서의 양성과 자격제도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구직 공고의 채용요건을 분석함으로써,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육내용을 알 수 있었고, 이것은 의학사서 교육 내용을 보완하는데 참조할 만한 연구라고 생각한다.

감미아와 김기영(2013)은 대학도서관 사서의 업무 만족도와 실제 대학도서관 사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식과의 연관성을 현 대학도서관 사서와의 비구조화 심층인터뷰를 통해 도출하였다. 그 결과 자기효능감, 사회적인지, 전문성 인지의 세 가지 인지 요소가 업무 만족도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얻었다. 특히, 자기효능감으로 표현되는 자기능력에 대한 인식과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서에게 요구되는 능력의 차이가 업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었다. 업무가 요구하는 능력에 따라 만족도에 의미 있는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가 나왔다. 자기능력이 요구되는 능력보다 크다고 생각할 때 가장 큰 불만족 상태가 나왔으며, 가장 만족한 상태는 자기능력과 요구되는 능력이 같을 때 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의 측면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얻었는데, 능력에 비해 보상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가장 불만족, 능력과 보상이 비슷하다고 생각할 때 가장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도와 자기효능감 사이의 의미있는 현상을 발견한 연구이다.

의학사서에 대한 연구의 전반적인 문제는 연구 수행이 절대 부족하다는 것이며, 자격제도에 대한 모니터링과 개선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의학사서의 전문성을 평가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데이터를 마련할 수

있는 연구들이 많아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배경의 전문성을 양적 혹은 지식 습득 수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예를들어, 의학지식 테스트) 사서들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직무 만족도,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자아개념 등 사회인지심리적 측면을 측정하여, 현재 직무에 대한 태도와 전문성 고취 정도를 점검하고 진단하여 처방을 내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며, 관련 연구도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 3. 연구 방법

#### 3.1 측정도구

본 연구는 조사를 위하여 세 가지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첫 번째 도구는 의학사서 현황, 자격취득 및 갱신 등 의학사서 개별 현황 및 의견을 조사하기 위하여 작성하였고, 두 번째 도구는 의학사서들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그리고 세 번째 도구는 의학사서들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기존의 타당화 검사를 거친 검사 문항을 활용하여 작성하였다.

의학사서 개별 현황 및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서, 의학사서의 성별, 연령, 일반사서 경력, 의학사서 경력, 현재 담당업무, 의학사서 자격증 취득 여부와 갱신 의사, 자격증 취득의 어려움 등 모두 11개 문항을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자기효능감 측정 도구로는 김이영과 차정은 (1996)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것은 비교적 안정적이며, 개인의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에서 많은 선행 연구가 이 도구를 사용하였다. 특징은 기존에 출판된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문헌들과 척도들을 종합 분석하여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선호의 세 가지 하위 요인들을 측정하는 문항들을 구성하였다는 것이다. 세 가지 하위 요인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표 2〉 참조).

신뢰도 분석과 타당도 검사에서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인 도구이며, 문항은 세 가지 하위영역에서 모두 2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고려대학교부설 행동과학연구소 2007). 본 연구에서는 24문항 모두에 대하여 '매우 그렇지 않다'에 1점, '그렇지 않다'에 2점, '보통이다'에 3점, '그렇다'에 4점, '매우 그렇다'에 5점을 주는 5점 척도를 사용하며, 문항에 따라 일부 문항은 역채점 하였다. 즉, 5점에 가까울수록 자기효능감이 높다.

〈표 2〉 자기효능감의 세가지 하위 영역의 정의

자기효능감 하위 영역	정의
자신감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인지적 판단과정을 통해 조성되고 감정적인 반응으로 표출된다.
자기조절효능감	개인이 어떤 과제를 달성하고자 할 때의 자기조절, 즉 자기관찰과 자기판단 그리고 자기반응을 잘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효능기대를 말한다.
과제난이도선호	개인이 어떤 수행상황에 임해서 목표를 선택하고 설정할 때 선호하는 과제난이도를 말한다.

자아존중감의 측정은 Rogenberg(1979)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우리말 문항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서초구립 반포종합사회복지관과 서울대학교 실천사회복지연구회가 펴낸 '사회복지척도집'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모두 10문항으로 이루어진 단일 차원의 척도로써, 본래는 고등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할 목적으로 설계하였으나, 이후 다양한 직업을 가진 성인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다른 집단에게 오랫동안 사용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구가 되었다(서초구립 반포종합사회복지관, 서울대학교 실천사회복지연구회 2007).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과 마찬가지로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5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도록 일부 문항의 경우 코딩을 변경하여 역채점 하였다.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 측정 문항은 <표 3>과 같다.

<표 3>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 측정 문항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자신감	1. 나는 위험한 상황에서 잘 대처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불안하다.	1. 나는 다른 사람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2. 나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당황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	2.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3. 나는 큰 문제가 생기면 불안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3. 나는 대체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4. 나는 위협적인 상황에서는 스트레스를 필요이상으로 받는다.	4.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할 수가 있다.
	5.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실패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곤 한다.	5.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6. 나는 부담스러운 상황에서는 우울함을 느낀다.	6.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7. 주변 사람들이 나보다 모든 일에서 뛰어난 것 같다.	7.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자기 조절 효능감	8. 어떤 문제에 대한 나의 판단은 대체로 정확하다.	8. 나는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
	9. 나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9. 나는 가끔 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10. 나는 무슨 일이든 정확하게 처리한다.	10.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1. 나는 어떤 일의 원인과 결과를 잘 분석해 낼 수 있다.	
	12. 나는 일이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되면 빨리 바로잡는다.	
	13. 나는 주어진 일을 하기 위해 정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14. 나는 어려움이 있을 때도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15. 나는 계획을 잘 짤 수 있다.	
	16.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판단할 수 있다.	
	17. 어떤 일이 처음에 잘 안되더라도 나는 될 때까지 해본다.	
	18. 나는 항상 목표를 세우고 그것에 비추어서 일의 진행상태를 확인한다.	
	19. 나는 일을 조직적으로 처리하는 편이다.	
과제 난이도 선호	20. 만일 일을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어려운 것보다는 쉬운 것을 선택할 것이다.	
	21. 아주 쉬운 일보다는 차라리 어려운 일을 좋아한다.	
	22. 좀 실수를 하더라도 어려운 일을 좋아한다.	
	23. 일은 쉬운 것일수록 좋다.	
	24. 어렵거나 도전적인 일에 매달리는 것은 재미있는 일이다.	

■ 역채점 문항



### 3.2 데이터 수집방법

본 연구는 한국의학도서관협회 163개 회원 기관에 재직 중인 모든 사서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2014년 12월 3일, 1차로 264명의 사서에게 설문을 발송하였다. 이들 중 17건이 잘못된 이메일 주소, 온라인 설문 차단, 수신거부 등의 이유로 유효하게 전송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전송된 메일은 247건이며, 2014년 12월 7일까지 31건을 회수하였다. 2014년 12월 8일, 한국의학도서관협회 사무국의 협조를 받아, 협회 사무국 명의의 조사 참여 협조의 글을 첨부하여, 회신하지 않은 사서들에 대하여 2차 발송을 실시하였다. 2014년 12월 29일까지 54건이 추가로 회수되었고, 최종적으로 모두 85건의 응답이 연구에 사용되었다. 회수율은 34.4%이다.

### 3.3 데이터 분석 방법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하여 『IBM SPSS Statistics 20』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였다. 응답자의 성별, 연령, 근무경력, 자격증 취득 여부,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등에 대한 기초통계를 산출하였고, 의학사서 개별 현황(성별, 연령, 근무경력, 자격증 취득 여부)과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서, 집단 간 차이분석(독립표본 t-검정, 일원배치분산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차이분석을 하는 실시하는 이유는, 의학사서의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의학사서자격증 취득 여부를 포함한 개인의 어떤 특성과 연관되는지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분석 결과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제안

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의 측정 결과는 다른 관종의 사서나 다른 직업 종사자들의 측정치와 비교할 때, 더욱 명확한 데이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지만, 다른 관종이나 다른 직업의 경우, 의학도서관이나 의학사서와 근무 환경과 업무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결과를 내리기 어렵거나, 정확하게 환경을 통제하지 못하면,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은 기초 통계에 의한 점수를 보편적 수준에서 가능하고, 비교는 응답자들의 특성에 따라 즉, 의학사서자격제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따라, 차이분석을 할 것이다.

## 4. 데이터 분석 결과

### 4.1 성별, 연령, 경력, 담당업무

설문에 회신한 응답자는 모두 85명이었으며, 이들 중 남성은 25명(29.4%), 여성은 60명(70.6%)으로 여성의 비율이 더 높다. 연령별로는 29세 이하가 8명(9.4%), 30세~39세가 34명(40.0%), 40세~49세가 26명(30.6%), 50세 이상이 17명(20.0%)으로, 30대와 40대가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일반사서 경력에 있어서는, 3년 미만이 15명(17.6%), 3년 이상~5년 미만이 5명(5.9%), 5년 이상~10년 미만이 12명(14.1%), 10년 이상~15년 미만이 13명(15.3%), 15년 이상~20년 미만이 13명(15.3%), 20년 이상 27명(31.8%)로 나타났다. 20년 이상 경력자의 비율이 높았다.

현재 근무기관(즉, 의학도서관에서 근무경력)에서의 사서 경력에 대해서는 3년 미만의 초보 사서와 20년 이상의 경력자 비율이 높다. 3년 미만이 22명(25.9%), 3년 이상~5년 미만이 6명(7.1%), 5년 이상~10년 미만이 9명(10.6%), 10년 이상~15년 미만이 15명(17.6%), 15년 이상~20년 미만 10명(11.8%), 20년 이상 23명(27.1%)로 나타났다.

사서들의 담당업무는 응답자 85명 중 22명이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한다고 하였고(25.9%), 담당 업무가 3가지 이상인 응답자는 43명으로(50.6%), 대다수의 응답자가 복수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병원도서관이나 연구소 도서실과 같이 소수의 인원이 근무하는 환경의 영향인 것으로 생각되며, 응답자들이 담당하는 업무 중 가장 많이 거론된 업무는 이용자교육으로 35명, 다음으로는 상호대차와 원문서비스 32명, 정보검색 27명, 연구지원서비스 26명으로, 이 업무들은 의학도서관의 핵심 업무임을 알 수 있다. 응답자 담당업무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는 <표 4>와 같다.

<표 4> 응답자 담당업무 (복수응답)

담당업무	N (%)
모든 업무	22 (25.9)
이용교육	35 (41.2)
상호대차/원문서비스	32 (37.6)
정보검색	27 (31.8)
연구지원	26 (30.5)
수서	16 (18.8)
대출반납/열람서비스	14 (16.5)
참고정보서비스	9 (10.6)
정기간행물(연속간행물 관리)	8 (9.4)
정리(목록)	7 (8.2)
전산/홈페이지관리	5 (5.9)
전체	85 (100)

#### 4.2 의학사서 자격증 취득 현황 및 관련 의견

의학사서 자격증 취득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42명이 취득(49.4%), 43명이 미취득(50.6%)으로 조사되었다. 의학사서자격증 취득자 42명 중 34명(82.9%)이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재취득 의사가 있다고 답하였고, 7명(17.1%)은 재취득 의사가 없다고 하였다. 재취득 의사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장 내에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제도가 비합리적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서, 자격제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향후 정책적인 여건이 마련되면, 재취득 의사는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5> 의학사서자격증 재취득 의사가 없는 이유(자유응답)

시간부족	'바쁜업무로 신경쓰기가 어렵다'
직장과 사회의 인식 부족	'현재 의학사서 자격증에 대한 직장 내 신뢰가 없음'
	'사회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서'
제도의 비합리성	'자격유지 조건을 새롭게 하였으면 한다. 재취득조건을 완화했으면 좋겠다'
	'의학사서 자격증의 발급기준이 합리적이지 못하다. 현장에서의 능력보다 협회활동 등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3년마다 신규갱신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은 의학사서의 자격이 3년마다 제로로 없어진다는 의미와 동일하므로 논리적이지 않음'
	'무엇을 위한 의학사서 자격증인지 그 목적이 불분명하고 효용가치가 없다'

자격증 미취득 상태인 응답자의 미취득 이유는 '자격점수를 충족시키지 못함' 18명(66.7%),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8명(29.6%), '자격증 취득 절차를 잘 알지 못함' 1명(3.7%)으로 나타났

다. 또한 기타 이유로는 '계약직 신분으로 자격요건 충족을 위한 활동을 하기 어렵다', '지방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교육과 활동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 수도권 집중되어 있는 것 같다', '충분한 시간이 없다' 등으로 답하였다. 대부분의 자격증 미취득자는 자격점수를 충족시키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표 6〉 의학사서자격증 미취득 이유

의학사서자격증 미취득 이유	N (%)
자격점수를 충족시키지 못함	25 (61.0)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8 (19.5)
자격증 취득 절차를 잘 알지 못함	1 (1.2)
기타 이유	7 (17.1)
전체	41 (100.0)

현재의 4개의 자격 평가 항목 각각에 대하여, 자격 점수 충족의 어려움의 정도를 '매우 쉽다' 1점부터 '매우 어렵다' 5점까지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출판사항을 충족시키는데 가장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4.17점), 다음으로는 학회 협회 활동(3.53점), 교육(3.28점), 실무경력 (2.94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무경력과 같이 같은 직장이나 직종에서 근무하면서 쌓이는 점수를 충족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느끼는 것 같지 않았지만, 업무 외로 추가적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학

회 협회 활동이나 출판활동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4.3 자기효능감 측정 결과 및 의학사서 특성과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

의학사서의 개별 특성과 응답자의 자기효능감은 세 가지 하위 영역에서 24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기초통계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7〉과 같다.

자기효능감 점수는 평균 3.42점으로 5점으로 갈수록 자기효능감이 높다고 볼 때, 보통 이상의 자기효능감 정도를 보였다. 세 가지 하위 영역별로는 자신감의 영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의학사서 개별적인 특성과 자기효능감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 지 조사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별, 의학사서경력, 의학사서자격증 취득 여부로 집단을 나누어 차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 의학사서자격증 취득 여부는 독립집단 t-검정을, 연령별, 의학사서경력별 분석에서는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별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 = -2.354, P < 0.05$ ). 그러나 연령별, 의학사서경력별, 의학사서자격증 취득 여부에 따른

〈표 7〉 자기효능감 측정 결과

자기효능감 하위영역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자신감	71	2.29	4.43	3.4769	.56421
자조절효능감	72	2.00	4.60	3.1806	.60529
과제난이도 선호	72	2.00	4.60	3.1806	.60529
전체	71	2.33	4.63	3.4243	.53342

〈표 8〉 의학사서자격 취득 여부에 따른 자신감 차이 분석

응답자의 특성		자신감			
		N	평균	통계량 t	유의확률
의학사서 자격 취득 여부	취득	34	3.6261	2.193 *	.032
	미취득	37	3.3398		

$p < 0.05$

차이는 없었다.

연령에 있어서는 40세~49세의 자기효능감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30세~39세, 50세 이상, 29세 이하의 순으로 나타났고, 의학사서 경력에 따른 자기효능감에 있어서는 10년 이상~1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순으로 나타났다. 의학사서자격 취득자의 자기효능감은 3.52점, 미취득자의 자기효능감은 3.33점으로 취득자의 경우 자기효능감이 더 높지만, 모두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다. 다만, 하위 영역 중 자신감에 있어서는 자격증 취득자가 미취득자보다 높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표 8〉 참조).

#### 4.4 자아존중감 측정 결과 및 의학사서 특성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표 9〉와 같이, 응답자의 자아존중감은 10개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평균 3.89점으로 대체로 높은 편으로 측정되었다.

다음으로, 의학사서 개별 특성과 자아존중감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성별에 있어서는 여성의 자아존중감이 남성의 자아존중감 보다 높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t = -3.766, p = 0.001$ ). 연령별 자아존중감에 있어서는 40세~49세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50세 이상, 29세 이하, 30세~39세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의미는 없다. 또한 의학사서경력에서도 3년 이상~5년 미만의 경력자가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20년 이상 경력자, 15년 이상~20년 미만의 경력자, 3년 미만 경력자, 5년 이상~10년 미만 경력자 순으로 자아존중감 점수가 산출되었으나, 통계적으로는 의미가 없었다.

그러나 10개 문항 중 1개의 문항에서, 의학사서자격 취득 여부에 따른 점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9번 문항 '나는 가끔 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에서, 이 문항에 응답한 의학사서자격증 취득자의 자아존중감은 4.34점인데 비하여, 미취득자의 자아존중감은 3.89점으로, 〈표 10〉과 같이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 = 2.189, p = 0.032$ ).

〈표 9〉 자아존중감 측정 결과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자아존중감	71	2.78	4.78	3.8904	.47526

〈표 10〉 의학사서자격 취득 여부에 따른 자신감 차이 분석

응답자의 특성		9. 나는 가끔 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N	평균	통계량 t	유의확률
의학사서 자격 취득 여부	취득	35	4.34	2.189 *	.032
	미취득	37	3.89		

$p < 0.05$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의학사서자격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8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의학사서자격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의학사서자격제가 의학사서들의 전문성 제고에 영향을 끼쳐 왔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을 측정하였다.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 측정은 직무에 대한 긍정적 태도, 만족감, 자신감 등을 알아볼 수 있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의학사서들의 전문성 제고에 대한 간접 척도로 사용되었다. 의학사서자격제도는 첫 시행 이후, 평가 내용과 방법이 거의 변경되지 않았고, 자격증을 취득한 의학사서의 수도 66명으로, 지난 노동조 등(2008) 조사의 66명에서 양적으로 변화는 없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학사서들은 의학사서 경력과 연령이 높은 편으로, 자격제도 시행 초기의 구성원에서 큰 변화가 없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 사서가 66명이라는 것은 비교적 의학사서 자격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주요 설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학사서들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였고, 연령별로는 20대는 매우 적

고, 30대와 40대가 전체의 70% 가량을 차지했으며, 50세 이상의 비율도 20%나 되었다.

둘째, 의학사서의 경력 분석에서, 3년 미만의 초보 의학사서의 비율이 25.9%이며, 20년 이상 경력 사서가 27.1%로 나타났다. 이 두 집단이 전체 의학사서의 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볼 때, 의학사서는 같은 직장이나 직종에서 변동 없이 오랜 근무 경력을 쌓아가는 경향이 있으며, 기관 내 많은 수의 사서가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20년 이상 경력 사서와 초보사서가 함께 근무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의학사서 자격 취득 현황에 있어서, 응답자 중 49.4%인 42명이 취득하였고, 50.6%인 43명이 미취득 상태로 나타났다. 자격증 취득 사서의 경우, 3년 유효기간 만료 후, 재취득 의사가 82.9%에 달하였다. 재취득 의사가 없는 경우, 그 이유로는 직장과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시간이 없으며, 자격제도 자체가 비합리적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한 평가 항목 중, 출판사항의 점수를 얻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하였으며, 다음으로는 학회 협회 활동, 교육, 근무경력의 순이었다. 근무 시간 외의 활동을 통하여 자격 점수를 획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넷째, 의학사서의 자기효능감은 3.42점, 자아

존중감은 3.89점으로 조사되었다. 상대적인 비교를 할 수는 없었지만, 보편적 기준으로 봤을 때, 자기효능감은 보통 수준, 자아존중감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 점수를 기반으로, 의학사서는 보통 이상의 긍정적인 직무태도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섯째, 의학사서의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지 분석하였는데, 성별에 따라서는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여성이 남성보다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 모두 더 높았다. 의학사서자격증 취득자의 경우, 자기효능감의 하위 영역 중 자신감에 있어서, 의학사서자격증 미취득자보다 높은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에서는 10개의 문항 중 단 1개의 문항에서만 의학사서자격증 미취득자보다 의학사서자격증 취득자가 자아존중감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이나 의학사서 근무경력 등은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과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관계를 형성하지 않았다.

연구 결과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학사서자격제도는 국가공인제도로 격상되어야 할 것이다. 전문직이 진정성을 갖고 전문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정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격제도가 국가공인제도로 격상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공인제도로 확립되면, 이후의 직장과 사회의 전문성에 대한 인정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는 각

종 평가에서도 의학사서에 대한 인정 부분이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를 들어 병원신입평가의 의학도서실 부문 평가 항목 직원 현황에는 정사서, 준사서, 일반직원으로 나누어 기입하도록 되어 있다. 즉 기관의 입장에서, 의학사서를 채용했을 경우, 얻게 되는 행정상의 이득이 없는 셈이며, 대학도서관 평가에서도 주제 전문성을 적절하게 평가할 항목은 없는 상태이다.

둘째, 자격 평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교화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육 항목에서, 현재는 의학도서관협회의 '의학용어강좌'와 'MeSH'강좌가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인데, 현장의 상황도 그 동안 많이 변화하였고, 의학사서들의 교육 욕구도 다변화 되었을 것으로 짐작한다. 그러므로 기존의 교육은 필수기본과정으로 유지하되, 수요조사를 통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하여 교육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교육의 형태 또한 지방에 재직하거나 경력의 짧아 외부 활동이 자유롭지 않은 사서들을 위하여,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을 추천하며, 대학의 문헌정보학과와 산학협력을 통하여, 필요한 교육을 주문하여, 현장이 원하는 의학사서를 양성해 나가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좋은 교육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의학사서의 전문성 수준과 직무 태도를 간접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을 측정하였으나, 관련된 중요한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하였다. 진술한 바와 같이,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과제나 업무에 집중하여 높은 성취도를 보이고, 자신에 대한 만족, 그리고 직무에 대한 긍정

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연구들이 있었다. 의학사서자격제도가 당초 목표한 대로 의학사서들의 근무의 안정성과 전문성의 고취 두 가지 목표를 순조롭게 달성해 왔다면, 의학자격증 취득 여부가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러나 연구에서는 매우 한정적인 부분에서만 의미 있는 결과를 보였는데, 연

구의 결과만을 놓고 볼 때, 의학사서자격제도가 의학사서의 직무태도를 변화시킬 만큼 강력한 제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경영상의 효율성 보다는 사서들의 전문성 제고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이용자들의 긍정적 평가를 도출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감미아, 김기영. 2013. 대학도서관 사서 업무 만족도와 인지적 특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2012. 『제19회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67-170.
- [2] 강소영, 권해경, 조미라. 2014. 간호사의 팀워크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과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12): 881-894.
- [3] 고려대학교 부설 행동과학연구소 편. 2000. 『심리척도 핸드북 II』. 서울: 학지사.
- [4]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 2014. 『- 창의인재 육성 및 국가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 2014-2018』. 서울: 교육부.
- [5] 김세륜, 조효연. 2012. 호텔 조직구성원들의 자아존중감과 직업존중감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24(3): 361-380.
- [6] 김아영, 차정은. 1996. 자기효능감의 측정. 『산업 및 조직심리학회 동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51-64.
- [7] 김아영. 1997. 학구적 실패에 대한 내성의 관련 변인 연구. 『교육심리연구』, 11(2): 1-19.
- [8] 노동조, 노영희, 안인자, 김성진. 2008. 『주제전문사서 인력수급 전망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9] 노영희. 2013. 건강정보전문사서의 역할 및 자격제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4): 93-122.
- [10]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14.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4-2018)』. 세종특별자치시: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11] 서초구립 반포종합사회복지관, 서울대학교 실천사회복지연구회. 2007. 『사회복지척도집』. 서울: 나눔의 집.
- [12] 신승욱, 노은경, 김은심. 2014. 요양보호사의 자기효능감과 삶의 질.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8(3): 85-91.

- [13] 신유근. 1997. 『인간 존중의 경영-조직 행위론적 접근』. 서울: 다산출판사.
- [14] 운영대. 2003. 의학사서직의 교육에 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4(1): 131-146.
- [15] 전해영. 2007. 의학사서제의 전문성 확보와 발전을 기대하며. 『도서관문화』, 48(1): 43-47.
- [16] 정갑두. 2009. 개인 욕구와 자아존중감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조직학회보』, 6(1): 163-174.
- [17] 한국의학도서관협회 홈페이지. [online] [cited 2014. 12. 27.] <<http://www.kmla.or.kr/>>
- [18]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Freeman.
- [19] Cooper 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W. H. Freeman & Co.
- [20] Robbins, Stephen P. 2011. *Organizational Behavior*. Upper Saddle River, New Jersey: Pearson Education.
- [21]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T: Princeton University Press.
- [22]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 [23] Steers, R. M. and Braunstein, D. N. 1976. "A Behaviorally-Based Measure of Manifest Needs in Work Setting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9(2): 251-266.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Kam, Miah and Kim, Giyeong. 2013. "An Exploratory Study on the Cognitive Characteristics and Work Satisfaction of Librarians in University Libraries." *Proceedings of the 19<sup>th</sup> Conference of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167-170.
- [2] Kang, So-Young, Kwon, Hae-Kyoung and Cho, Mi-Ra. 2014. "Effects of Nurses' Teamwork on Job Satisfaction at Hospital: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12): 881-894.
- [5] Kim, Sae-Rom and Cho, Hyo-Yeon. 2012. "The Effect of Self-Esteem and Job-Esteem on Job Satisfaction." *Journal of Tourism and Leisure Research*, 24(3): 361-380.
- [6] Kim, Ahyoung and Cha, Jungeun. 1996. "The Measurement of Self-Efficacy." *Proceedings of the Winter Conference of Korean Society for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51-64.
- [7] Kim, Ahyoung. 1997. "A Study on the Academic Failure-Tolerance and its correlate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1(2): 1-19.



- [9] Noh, Younghee. 2013. "A study on Investigating Roles and Qualifications of Health Information Librarian."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4(4): 93-122.
- [12] Shin, Seung-Ok, Roh, Eun-Kyung and Kim, Eun-Sim. 2014. "Caregiver's of the Correlation between Self-Efficacy and Quality of Life." *Journal of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8(3): 85-91.
- [14] Yoon, Yung-Dai. 2003. "A Study of Education for Medical Librarianship."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4(1): 131-146.
- [16] Jung, Gab-Du. 2009. "The Influence of Individual Differences on Job Stress." *Korean Review of Organizational Studies*, 6(1): 163-174.

